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김정춘 편집인:노광현 편집:양재웅

이번 주 금요찬양집회(15일), 저녁 7시 30분

제2차 청지기훈련

“서로 사랑하자”(요일 4:7~11)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 매매매 시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 화락, 화평, 인내, 자비, 양심의 열매! 앞으로 계속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특히 이 모든 열매의 기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즉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이 사랑은 우리의 삶에 맺어질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

“서로 사랑하자”(요일 4:7~11) 이 사랑의 복음이 이번 주 금요찬양집회 시에 있을 제2차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충현교회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거저된 사랑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향해 선포되는 십자가 사랑의 복음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초점을 청지기훈련에 맞추기 원합니다. 분명히 악한 사탄은 청지기훈련에 오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 때마다 성령의 겹으로 악한 영과 대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고전 15:57)

25개 교구로 개편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청지기훈련인 만큼 모든 교구에서는 사랑의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마음을 모아주시고, 특히 말씀으로 충만한 청지기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힘쓰되 가능하면 금식하며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행 14:23) 청지기훈련 당일, 적절한 날씨와 교통, 예배당의 모든 시설, 순서담당자 특히 두 시간 가량 말씀을 전하실 위임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될 때에 성령은 역사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일 4:11)

*청지기훈련 작성안내는 본지 7면 참조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들으라! (금요찬양집회)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과연 누가 가장 위에 자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을 요하는 질문이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난 기회 속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사탄의 역사 아래 살고 있다. 따라서 바로 지금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도구가 되어야 할 때이다. (요 6:40) 창세 이래로 인간에게는 엄청난 자유의 의지가 주어졌고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할 명령도 내려졌다. (창 2:16,17) 이 때에 선악의 의지도 함께 주어졌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범죄하였고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히 9:27) 죽음의 선고받은 채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죽음을 가져온 선악의 의지는 아직도 주어졌다. (창 4:7)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 인간은 모두가 죄를 다스리지 못한 채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 (왕상 8:46; 롬 3:23) 이러한 죄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롬 3:10~12; 요 3:16~18)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다. (마 16:15,16)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신 뒤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다. (마 16:17~19)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이 땅위에서 사는 동안 천국 열쇠를 허락하여 주셨다. (요 6:39) 그러나 천국이 확장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믿음으로 천국을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그대로 부활시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 중심으로 팽창하였던 기독교의 역사가 더 이상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보여준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가 사람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음도 보여준다. (눅 18:8, 17:32)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삶의 모든 면에서 실존적으로 그대로 실천될 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많은 모태신앙인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증거

도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진리를 깨달았다. 또한 삼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의 삶을 배웠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이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참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삿 13:5) 이처럼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구별되어 세워진 자들로 각 개인에게는 그분의 선하신 뜻이 계시다. (요 6:40)

우리에게는 자신과 하나님의 일 사이의 선택이 놓여 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전도운동, 청지기훈련, 성령학교 등을 통하여 믿지 않던 자가 주께로 돌아온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가 살아 역사함을 보고 또 그 진리를 찾게 된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다. 이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다.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 교육으로 넘쳐흐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아주 깊은 공허에 빠져들고 있으며 수많은 청년들은 삶의 가치를 잃고 생명을 스스로 끊고 있다. 생명을 일찍이 끊어버리려는 결정에는 분명히 절망이 있으며 그 깊은 곳에는 회망, 소망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 소망을 갖고 싶어 할 것인가? (행 11:24~26)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를 통하여 안디옥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바나바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울을 찾아갔다. 고집 많은 사울이 바나바의 요청에 순종하여 안디옥으로 같이 간다. 바나바와 사울의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정 아름다웠다. 짧은 1년의 시간에 기적은 일어났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행 11:26)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쟁이”라는 칭호였다. 그 당시 이 칭호는 그리스도인을 알아내는데 쓰인 것이요, 경멸하는 어조가 섞여 있는 표현이었다. 그러나 후에는 경멸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오히려 존경을 받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기쁨으로 쓰여졌다.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께서 주신 큰 변화를 보여 주기 위해 실존적으로 실천되어 살아 역사하여야만 한다. (벧전 2:9,10) 과거의 세대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메시지, 새로 오는 세대에게 전하여질 그 메시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변함없이 동일한 말씀이다. (행 16:30~34)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이 세대가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GENTLENESS

*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Galatians 5:23)*

Gentleness is part of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It is produced from the softness, humbleness, and meekness of our new nature in Christ Jesus. Most people think about gentleness in terms of weakness or cowardice, but in reality it is just the opposite. Gentleness requires discipline through the efforts of the Holy Spirit. It is a strong character point. When certain religious officials spit in Jesus' face, beat Him with their fists, and slapped Him in His face, He did not retaliate or say anything. His inner peace could not be shaken by any condition or circumstance because His gentleness toward sinners stemmed from His real love for souls. Gentleness means having patience, being humble, and submitting to God's will. With human effort this is extremely difficult, and for long periods of time quite impossible, but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t is possible. There are people you may know who are gentle because they are weak, but the gentleness produced by the Holy Spirit is in Christians who are strong.

As a Christian, you need to learn from Jesus how to practice gentleness. When you truly and humbly accept the Word of God, your pride disappears and your rebellious nature collapses. Your harsh attitudes change into gentle manners. Jesus said,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Mt. 11:29) Gentleness grows from the foundation of a humble heart. When you reverently pray and read your Bible there is so much power. Through the Bible you can really hear God's voice and learn from Jesus. James 1:21 says, "Therefore, putting aside all filthiness and all that remains of wickedness, in humility receive the word implanted, which is able to save your souls." Gentleness cannot come through your own effort; the human heart needs to be humble to the Word of God. Jesus said,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t. 11:28) You have to go to Jesus, and whatever He says, you need to say "Yes, Lord!" In this way, gentleness can build up, "Brethren, even if anyone is caught in any trespass, you who are spiritual, restore such a one in a spirit of gentleness; each one looking to yourself, so that you too will not be tempted." (Gal. 6:1) You have to act properly when God calls you, "with all humility and gentleness, with patience, showing tolerance for one another in love, being diligent to preserve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Eph. 4:2&3)

As a Christian, you need to be a gentle leader, "with

gentleness correcting those who are in opposition, if perhaps God may grant them repentance leading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2 Tim. 2:25) Quarreling only arouses the hostility of sinners; whereas the purpose of gentle and patient correction is remedial: to bring repentance; to acknowledge the truth; and to release from Satan's trap. Titus 3:2 reminds Christians, "to malign no one, to be peaceable, gentle, showing every consideration for all men." Moses was a gentle and humble leader. The Bible tells us, "Now the man Moses was very humble, more than any man who was on the face of the earth" (Num. 12:3). The biblical stories of Moses tell us what a great and powerful leader he was. He never bent to evil. He stood like a tower before King Pharaoh, and the Israelites. He was not a tyrant, but a humble servant. He did not play the world's political games because he always held God above everyone and everything. His greatness and His gentleness came from obeying the Word of God.

As a Christian, you need to look at and understand the gentleness of the Lamb of God. When John the Baptist saw Jesus, He said,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Jn. 1:29) A lot of people today teach top executives that they need to be rich, healthy, and successful to be excellent leaders. Truly great leaders look to the meek, soft, and humble Lamb of God to learn about leadership. Jesus prayed, "My Father, if it i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Mt. 26:39) Jesus did not turn to traditions or methods, but to God. Are you always demanding your own way? Jesus is a perfect example of gentleness. He did not resist crucifixion, but agreed to let God's will be done. Lambs represent sacrifice. How about you? Are you willing to sacrifice your way? Most of you do not honestly or seriously pay attention to the Bible. You always turn to your own experience and desire, not God's. Let me ask you, do you have trouble getting along with others? Do you get angry when things do not go your way? Ask the Holy Spirit for gentleness. I'm pretty sure He will produce it in you.

My dear friend, a gentle and quiet spirit is precious in the sight of God. (1 Pet. 3:4) Please practice gentleness, be a gentle leader, and look to the Lamb of God for direction. Give up your thinking, read your Bible, and only follow Jesus. He will lead you to heaven. If you want real riches, health, and success, then stop looking to the world and others for help, and start paying serious attention to Jesus Christ, the gentle and humble Lamb of God. 🙏

다음 주일 설교

온 유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3)

김성관 목사

온유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 받은 성품으로, 부드럽고, 겸손하며, 유순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을 연약하고 비겁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많은 훈련을 쌓아오만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품성 가운데 최고 정점입니다. 종교 관원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렸을 때 주님은 거기에 응수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는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뒤흔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온유함은 영혼들을 향한 그분의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오래 참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온유해지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오랜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온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온유

신자는 예수님을 통해 온유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교만은 사라지고 반향적인 성질은 무너지게 됩니다. 거친 태도는 온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 11:29) 온유는 겸손한 마음을 기초로 자랍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온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21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네, 주님!” 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온유의 열매는 맺혀집니다. “형제들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갈 6:1)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2,3)

지도자에게 필요한 온유

신자는 온유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찌니 혹 하나님이 너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딤후 2:25) 다름은 죄인들에게 적대감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반면 온유

와 오래 참음으로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태도는 그 영혼을 치료합니다. 이것은 회개를 낳고, 진리를 깨닫게 하며, 사탄의 울무에서 해방시킵니다. 디도서 3:2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아무도 횡행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모세는 온유와 겸손을 겸비한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민 12:3)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이야기들은 그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는지 말해줍니다. 그는 결코 악에 굴복하지 않았습다. 모세는 바로 왕과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요새와 같이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폭군이 아닌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상의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세상을 상대로 정치적인 게임을 벌이지 않았습다. 그의 위대함과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깨닫는 온유

신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여주시는 온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지도자가 되는 비결은 부, 건강, 지식과 인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들은 온순하고, 너그럽고, 겸손한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면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예수님은 전통이나 방법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은 항상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유의 완벽한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회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자신의 의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욕망에 의존하기 일쑤입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가지 않을 때 화가 납니까? 그렇다면 성령께 온유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평온한 심령을 귀히 여기십니다. (벧전 3:4) 온유해 지십시오. 온유한 지도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참 부요함과 건강, 성공을 원한다면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기대하며 의지하지 마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한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6. 6.)

인 내 (갈라디아서 5:22)

이 세상을 사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는 세상 사람들이 이 배우고 익히려는 인내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는 성공을 위한 방법·수단의 방편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다. 사랑·희락·화평의 열매에 이은 인내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같은 고생이나.”(찬 364장)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는 고난이 동반된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인내는 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내가 참는 것이 아니다. 인내의 열매가 있는 신자는 이렇게 고백한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세요.” 내가 참을 때 나의 공로와 의를 내세우게 된다. 자기를 부인하여 사라진 자에게 ‘내가 참는 것’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인내를 위한 훈련도 필요 없다. 자기를 부인하여 죽은 사람에게 인내를 위한 무슨 수련이 필요하겠는가? 성령의 열매로서 인내에는 자식은 없다. 내가 없기에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실 뿐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찬 364장) 성령의 역사로 인내의 열매는 맺힌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인항력이 필요하다.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찬 365장)

강하게 인내를 청송해야 한다 인내의 열매로 풍성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시 27:14) 자신의 힘으로 인내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자.(시 37:7)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결국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욕심과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구를 내가 깨달았나이다”(시 73:17)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참 소망의 기쁨은 우리 안에 가득할 것이다. 인내는 모든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원망과 불평을 한다. 결국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성령은 소멸될 수 밖에 없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시 62:5)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성령의 역사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는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처럼 올라갈 길을 얻으리니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사 40:31) 나의 힘, 두정, 능력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인내하자.(행 1:4) 이처럼 인내하며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살전 1:10) 하나님의 약속, 섭리, 은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내려졌다. 참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히 12:1) 전적으로 성령만을 의지하며 천국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자.

인내의 예 인내의 열매로 가득했던 욕의 삶을 보자. 욕은 당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음에도 타락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욕의 순전한 믿음을 인정할 정도로 그의 삶은 경건하였고 흠잡을 데가 전혀 없었다.(욥 1:1,8) 이런 그를 사탄은 시험하였고 결국 욕은 하나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잃었다. 사탄하는 자녀들과 자신의 건강까지 잃었을 때 그의 아내는 욕에게 말한다. “당신은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랴?”(욥 2:9) 그러나 욕의 대답은 놀라웠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니”(욥 2:10) 결국 욕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 변하지 않았다.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인내를 보자. 그들은 죽을 아예 서 있었다. 반면에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할 길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죽음이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히 타는 불로 가운데서 능히 견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견내시리이다”라고 인내하시리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상자에 절하지도 아니하리니 죽을 아예 서 있었다.(단 3:17,18) 또한 다니엘도 굶주린 사자굴에서 나온 뒤에 놀라운 고백을 하였다. “나의 하나님이나 이 미 그 천사를 보아도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삼켜도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같이 명백함이었으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단 6:22)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했는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 로마를 맞은 뒤 정신을 잃고 무옥되었다. 그들이 깨어난 후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나왔고 영혼을 위한 간구가 있었다.(행 16:23-25)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인내의 열매를 맺었던 욕, 다니엘과 친구들, 바울과 실라는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보지 않았다. 자신들의 힘으로 인내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들을 짓눌렀지만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셨다.

인내의 진정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람들로부터 참기 힘든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음에도 예수님은 인내하셨다.(막 14:65)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생명까지 맡기며 인내하셨다.(막 14:34~36) 갈보리의 십자가에서의 극심한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인내하셨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 우리의 삶에 인내의 열매가 맺히어 한다. 자신의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다.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오직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성령께 순종하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인내로 풍성한 성령의 삶을 살자.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찬 367장) 아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5교구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

“내가 이 반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새롭게 개편된 5교구는 이전 3교구 5개 지역과 5교구 3개 지역을 합하여 이루어졌다. 교회의 동남쪽방향에 위치한 5교구는 강남구 대치동, 일원동, 수서동, 율연동에 사는 286세대 701명의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며 8지역 23개 구역, 8개 전도회로 구성되어 있다. 성도 중 안수집사 11명, 권사 23명, 서리집사 139명, 관할 9명의 직분자가 있으며, 두 분의 은퇴장로, 은퇴권사 열여섯 분이 계신다.

5교구의 거주 환경은 젊은이들은 적고, 나이 많은 어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으로 비교적 교회와 가깝지만 교통편이 좋지 못하여 의외로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아파트문화를 이루고 있어 이웃들과의 교류가 별로 없고, 생활의 여유가 있어 즐기며 사는 사람들의 지역과, 부양가족이 없어 국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같이 서로의 형편과 환경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그리스도인!”(마 16:18)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을 이루어 선교관 지하2층 매추락기 홀에서 교구 모임을 갖는다. 비록 환경과 형편은 다르지만 교구모임을 통하여 한 이름을 찬양하고, 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모든 교구 직원들은 마음을 합하여 잃어버린 영혼, 자라는 영혼을 찾아 깨우는 일에 하나님과 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간다.(호 14:2) 교만과 버리고 겸손한 심령으로, “돌아오리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구가 되기를 소원하며, 혼자 있으면 기도하고, 둘이 모이면 찬송하고, 셋이 모이면 말씀 보는 교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주님 안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고백하며 각 지역들의 지역장을 중심으로 구역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롬 11:29)

이제부터 우리 5교구는 매순간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한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며 교만함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갑자기 주님 사랑을 감당하며 주님을 좇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말이다.(골 3:7) 법사에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주님이임을 인정하며, “입술로 불평하고 마음으로 원망하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나가는 천국일꾼으로 서로를 돌리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리라 믿는다.



양기수(장로, 제5교구장)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최근 몽골 현지교회의 성례식 및 새로운 선교지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선교위원회의 임원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보혈의 흔적들을 기쁨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안타까운 소식도 접하였습니다. N국에 세워진 한 교회 때문입니다. 처음 이 교회는 현지인사역자에 의해 N국 변방의 작은 도시에 우리 교회가 매입하여 준 건물에 '안타교육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현지인사역자는 우리 교회와 상의도 없이 현지 교회의 이름을 바꾸어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자신은 그 지방 가장 큰 도시로 옮겨 교회개척을 시작하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교회건물을 예배처소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금반 봉 교회운영비를 조달하겠다는 명목으로 우리 교회와 상의도 없이 상암으로 임대하였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이 너희는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갈 3:1)

악한 사탄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좀 더 합리적 제안과 행복한 성공을 보증하며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살전 5:6) 특히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막 9:29) 이들의 사명이 중요한 만큼 악한 영들은 더욱 현지교회의 사역자와 성도를 괴롭혀서 십자가의 복음을 막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교지에 세워진 많은 교회 중 급변에 일어난 한 교회의 진통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령의 역사는 변함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십니다. 단기선교를 통한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아울러 선교지에 세워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근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산 27:7)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28(일) - 6월 5(일)까지	11·12교구 연합	조영철
6월 2(일) - 6월 9(일)까지	8교구·청년1부 연합	조종민
6월 2(일) - 6월 9(일)까지	7·3·6교구 연합	송한천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8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4(일) - 6월 13(일)까지	9·10교구 연합	김종중
6월 5(일) - 6월 13(일)까지	23구 대학·원광대	한홍연
6월 6(일) - 6월 13(일)까지	24교구	진학래
6월 6(일) - 6월 14(일)까지	24·16교구 연합	박재현
6월 6(일) - 6월 14(일)까지	24교구	정금수
6월 7(일) - 6월 15(일)까지	12·11교구 연합	심학민
6월 7(일) - 6월 15(일)까지	4·5·14교구 연합	박준호

기 간	평신도 단기선교사
4월 4(일) - 6월 23(일)까지	정영미·전혜연(예비대학)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선교의 길

16·24교구 연합

- ✦ 자기를 부인하며 전도하는 팀원들의 모습과 현지 학생들의 통통한 눈, 해맑은 목소리로 찬양, 율동, 기도하는 모습 속에 '왜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이명근 집사)
- ✦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과 기쁨이 교차되어 저의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더 거룩한 욕기가 생겼고 더렵혀져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의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문준우 권사)
- ✦ 성령님의 도움으로 어린이 사역과 축호전례를 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위한 전도 언어를 따라 하며 411장 찬송가와 율동을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현지에 주님의 교회가,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심영순 권사)
- ✦ 우리는 매일 사역 평가회 시간을 통해 우리 부족함을 회개하며 내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이전에 여러 번의 경험에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임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장경수 안수집사)
- ✦ 자기 부인을 못하고 많은 망설임 끝에 기도로 조금씩 준비하게 하시더니, 이곳까지 복음을 들고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어찌 그리 순수하고 아름다운지요!"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구원은 없기에 간절히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배연희 집사)
- ✦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나는 학생들 앞에서 모든 것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진행되었지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모두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산은희 집사)
- ✦ 내가 하려고 애쓰고 힘들 때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들 들으며 다시 한 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짧은 언어로 한없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 전하기엔 너무 부족했지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저들을 천히 만나 주옵소서." (김세향 집사)
- ✦ 성령님께서 우리 앞서 역사하셔서 학교들과 주요 시설들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 주님의 십자가 복음과 사랑을 마음껏 전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큰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마을전도, 축호전도, 노방전도, 시장전도, 터미널전도 등 공형에 들어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간시간마다 선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김철환 안수집사)

나 같은 무지렁이를...

현지에 도착해보니 맑은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황토 냇물, 강물, 웅덩이... 식수는 빗물을 받아 사용하는데 한 아리를 들여다보니 벌레가 우글 우글, '정말 이런 곳도 있을까!' 싶었다. 소, 돼지, 개들이 사람과 함께 지내는데 차라리 짐승들이 사람보다 더 깨끗해 보였다. 이곳은 빈곤이란 단어 자체가 과분하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다. 발걸음이 무거워지면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문맹인들은 매우 많았고 불쌍한 영혼들로 가득한 그 지역을 나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만 간절했다. '아직도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있구나. 정신 차려! 하나님아 인간과 우리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들도 같은 주님의 멋진 작품이야. 여기에도 복음이 절실한 영혼이 분명히 있을 거야!' 어느 사이엔가 나는 나를 제책잡고 있었다. 이처럼 주님은 나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셨다.

웃을 입지 않은 남자들은 온 몸에 문신을 해서 접근하기 두려웠지만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의 손을 잡고 영접되도록 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 돌아오는 길에 청년들이 모여서 배구를 하고 있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줘...' "주님 담대함 주세요."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때 한 청년이 소리 지르며 아우구하고 육하여 전도지를 받은 동료들 향해 비아냥거렸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그에게로 다가가서 그의 손을 꼭 잡고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사탄의 눈 같았다. "주님 너무 무서워요. 도와 주세요. 성령님이 도와 주세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그에게 말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 청년은 더욱 팔팔 뛰면서 아우구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어떻게 해요. 저는 몰라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더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다. 정신은 없었지만 나는 그 청년의 손을 놓지 않았다.

웬 해임입니까! 그의 눈이 갑자기 풀리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를 따라 영접기도를 하고 있기에 어닌가!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이다. 날뛴던 청년은 마치 예수님을 만난 순한 양같이 가만히 있었다. 분명 그는 주님을 만난 것이다. 그것을 본 옆의 청년이 찬양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나 같은 무지렁이(*무지렁이의 사투리)를 십자가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예수님,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이규숙(권사, 10교구))

찬양은 주님의 큰 선물

찬양대원 양성부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한 생각과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렸는지 깨달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거룩하신 앞에 나는 연약한 죄인이었으며, 그분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함이고, 아무리 주님을 찬양해도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동안 내 삶에 참 감사의 찬양이 없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찬양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힘으로가 아니라 항상 겸손하고 자기 부인의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준비된 찬양대원으로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효철(집사, 9교구)

가족이 한 곳에 모여서 신앙생활 할 교회를 찾던 중 중현교회로 오게 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목사님의 메시지가 정말 복음에, 예수님의 우선순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예배 때 찬양대가 악보도 없이 찬양을 드리는 데 화음을 넣는 것이 정말 천사의 소리 같았다는 점이다. 특히 교회에 나오면서 더 크게 놀란 것은 전공자에 의한 예배 찬양이 아니라 전교인이 찬양대원인 금요찬양집회였다. 온 회중이 <거룩한 성>(송나라 무)를 부르는 것을 보며 정말 감격했고, '천국이 이룰것구나!' 싶었다. 이처럼 주님은 참 찬양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찬양대원 양성부에서 교육을 받게 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 찬양하며 한 찬양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어디 좋은 곳으로 여행가는 것보다 더욱더 기대된다. 찬양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큰 선물이다. 이 죄많은 부족한 인생에게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찬양을 통해 소생할 기회를 주시며, 진정 감사할 뿐이다. 찬양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찬양을 붙들며 다시 믿음으로 나아간다. "부족한 죄인의 찬송을 받으시며, 이 인생도 구원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 2007년 전반기 교육훈련원 교육을 마쳤습니다.
9월에 개강할 후반기 교육에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태은(성도, 15교구)

오순절 성령강림 주일에 주신 은혜

하나님의 영원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치밀하신 큰 계획은 늘 보잘것없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어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오직 기도에만 힘쓰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기신 사역을 수행하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할 사명의 구원계획을 담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세상 것들에 마음과 관심을 더 빼앗겨서인지 그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쓰임 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이나 교리를 배우는데 정신을 쏟거나, 또는 사회의 윤리나 합리주의에 빠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 했던 이런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우리의 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령강림 주일을 맞아 목사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러한 나의 어려서고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믿음의 반식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멋진 프로그램이나 훌륭한 비전 등으로 교회와 교회사위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을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인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은 열매인 것이 될 수 없으며 곧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부인하며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저에게서 명령하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찬양!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어 종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하경(집사, 15교구)

교사는 그리스도의 종인

천국일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원 교사양성부의 체계적인 훈련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이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전한 교사의 모델 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박성남(집사, 10교구)

매주일 강의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서는 제 마음 한 가운데 있던 저의 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대신에 영혼을 위한 최고의 섬김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으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자기를 부인할 때 참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형준(성도, 17교구)

십자가는 새 생명의 출발점

주님께서, 결혼 후 1년 반 만에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아내가 밤이 새도록 고생하였고, 출산 직후에는 산소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했습니다. 이런 긴 고생 끝에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 매우 기뻐고, 임신에서 출산까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해왔던 것들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출산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10개월 간의 고생과 출산의 고통,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이후 말할 수 없는 기쁨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당하신 사실(히 12:2)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셨고 다시 한번 저는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지금은 저희 아기가 벌써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말도 잘 하지 못하지만 아기가 "아빠, 아빠"하며 저를 찾을 때마다 그 자체만으로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고전 1:9)를 원하시고 비록 죄뿐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열매 속에 씨앗은 썩 수 있어도 씨앗 속에 있는 열매는 썩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아기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복음의 통로가 되 기(창 12:1,2)를 바라고 기도하며 양육하겠습니다.

조영진(집사, 21교구)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청지기훈련

청지기훈련이 다가오면 나는 기도제목이 하나 더 생긴다. 청지기훈련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늘 늦게 퇴근해야 하는 직장 때문이다. “주님, 이번 청지기훈련의 날에는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말씀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나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니 청지기훈련 때에 꼭 일찍 퇴근하도록 해 주시거나 아니면 동료들의 배려를 받게 해 주신다.

지난 청지기훈련 때에도 주님은 예외없이 나의 기도를 들어 주셨고, 바쁜 길에서도 말씀의 자리에 참석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위에 세워지는 교회와 더불어 사명으로 그 십자가 복음이 뻗어 나가는 비전의 말씀을 보게 하셨기 때문이다. (겔 34:26) 영적으로 죽어 있는 또는 죽어가는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도록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셨다. 그들과 같이 십자가 복음의 은총 위에 세워지도록 나에게 긴급한 도움을 주신 것이었다.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 늦은 비처럼 청지기훈련은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훈련과 동시에 거둢님의 축복이다. 어찌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때 그때마다 주시는지 마치 주님이 내 마음을 원히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다. 그런 마음으로 청지기훈련의 주제를 은근히 사모하며 기다렸다.

“서로 사랑하자”(요일 4:7~11)라는 주제로 제2차 청지기훈련을 실시한다고 광고가 나왔다. 이 주제를 접하는 순간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새겨졌다. 그동안 나는 ‘서로’가 아닌 ‘나 홀로’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한 것은 아닌가? 십자가 보혈로 인해 놀라운 은총을 받았지만 나 자신만의 ‘이기적인 신앙’으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생각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백 번의 일, 아니 백만 번의 일도 실천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셨다. 주님이 다시 한 번 나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길 원하신다는 기대감으로 벅차 오르는 순간이었다. 청지기훈련의 말씀이 무척 기뻐진다.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싶다. 그리하여 다시 한 번 십자가 복음의 청지기로 새로워지고 싶다. “예수님, 말씀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원보(집사, 청년 1부)

회 복

성인이 된 저는 연고도 없는 서울로 올라오고 되었고 외롭게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심적으로 매우 힘들고 지쳐있을 때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리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지할 곳이 생겨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최근 3개월 전부터 새가족 양육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를 새가족 양육부로 안내해 주신 권사님은 “하나님의 어린 딸이 이렇게 왔으니 예수님께서 지켜 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너무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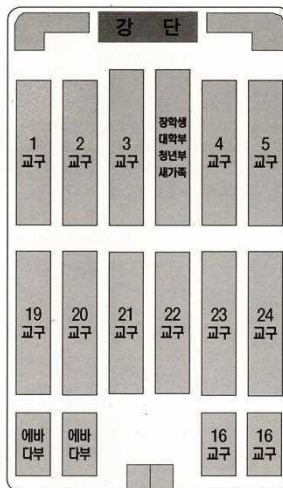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 때문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인지 아버지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할머니는 우울증으로 농약을 드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서인지 저는 내심 사랑받기를 무척이나 원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낯선 사람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항상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위로해주시는 권사님의 사랑이 저에게는 무척 소중했습니다.

요즘 새가족 양육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느끼는 것에 비례하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에 있으니 제가 세상을 향해 쌓았던 담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하였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픈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짧은 글로 저의 마음을 모두 담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많은 변화와 저의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부정적이고 낙관한 생각으로 가득했던 저의 영혼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 이제 저도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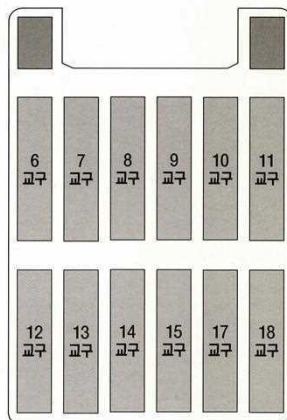
김수민(성도, 새가족양육부)

청지기훈련 좌석 안내

본당 1층 좌석 배치



본당 2·3층 좌석 배치



- 출석표에는 교구, 교사, 찬양대 등 자신이 속한 모든 부서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탁아부를 운영하시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또한 어린이와 같이 참석하실 분은 어린이집 (부모와 3세 이하), 영아부실 (부모와 5세 이하), 배디니홀 (부모와 7세 이하)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십시오.
-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로 주차 차량은 먼저 출차(出車)에 주시기 바라며, 차량안내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새 가족을 환영 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022	나카리	13	중흥3부	김영미(1)	1048	윤나영	16	청년1부	박현숙(2)	1074	이영재	11	대학부	강지영(9)
1023	박태웅	23	소망부	김혜미(10)	1049	우일라기25	외선부	윤태현(18)		1075	이미진	8	청년1부	강종욱(5)
1024	정호준	8	대학부	배성민(24)	1050	오영희	13	청년1부	정현혜(15)	1076	김창호	19	청년1부	정태용(4)
1025	유원민	12	대학부	김성민(11)	1051	김용현	12	청년2부	이홍기(3)	1077	이신애	19	대학부	허준화(8)
1026	정재구	6	청년1부	이진영(8)	1052	시온	25	외선부	박남주(4)	1078	김 문	1	청년1부	신영주(1)
1027	신선희	23	청년2부	신재선(23)	1053	윤라라	25	외선부	유영진(7)	1079	이은준	16	청년1부	황정숙(1)
1028	이숙자	17	청년2부	오현숙(8)	1054	정승주	12	청년1부	박영기(17)	1080	김승훈	6	고등부	최민아(19)
1029	박준수	3	중흥3부	김지영(13)	1055	오영숙	10	청년1부	오영현(8)	1081	고교연	21	대학부	고홍섭(21)
1030	김영현	5	청년1부	이홍성(1)	1056	무디가	25	외선부	박희성(22)	1082	최규하	24	청년1부	이동훈(17)
1031	이종현	7	대학부	이홍숙(1)	1057	기안	25	외선부	김윤선(22)	1083	구자현	16	고등부	박오승(21)
1032	정일상	21	중흥2부	나형준(13)	1058	지란	25	외선부	배종욱(2)	1084	여지	25	외선부	정종숙(21)
1033	지정훈	11	청년3부	박정현(11)	1059	삼태	25	외선부	한준영(22)	1085	윤지	25	외선부	이윤진(1)
1034	김지수	22	고등부	성경숙(22)	1060	백민기	11	대학부	정준영(2)	1086	나라	25	외선부	이동진(1)
1035	심정진	22	고등부	성경숙(22)	1061	황재영	23	대학부	김미영(8)	1087	태지	25	외선부	김순남(10)
1036	송재현	7	중흥2부	김재영(7)	1062	이진영	4	청년1부	이경현(18)	1088	김보희	25	외선부	이윤진(1)
1037	노혜재	4	고등부	임정숙(8)	1063	박주홍	4	중흥3부	김지영(8)	1089	이바트	25	외선부	정종숙(21)
1038	고인후	20	중흥2부	김정현(3)	1064	조추현	18	청년1부	조재남(12)	1090	디와	25	청년1부	정종숙(21)
1039	강나선	23	청년2부	고교연(13)	1065	이은종	10	대학부	추수홍(15)	1091	박두영	1	청년2부	
1040	사현정	2	사망부	최윤(21)	1066	김성민	16	청년1부	박성영(16)	1092	최정현	1	청년1부	
1041	서정현	7	사망부	조영민(14)	1067	신진숙	16	청년1부	박성영(16)	1093	이윤현	18	청년1부	오종근(21)
1042	임지은	23	청년2부	정지은(2)	1068	윤영숙	16	소망부	김희숙(16)	1094	설다은	18	대학부	김진영(9)
1043	윤나선	23	청년2부	한진영(18)	1069	손희희	11	청년1부	조옥련(11)	1095	윤영숙	18	청년1부	허영주(24)
1044	노준현	22	청년1부	전민준(2)	1070	최지은	1	고등부	육지영(8)	1096	김재경	21	청년2부	오미라(1)
1045	김성진	18	대학부	조종국(14)	1071	김진선	3	청년1부	유순영(3)	1097	정아영	23	중흥3부	
1046	주진하	13	대학부	김근이(4)	1072	김종훈	21	청년1부	서혜덕(14)					
1047	송정현	9	청년2부	정민지(8)	1073	조수진	11	대학부	김진영(8)					

* 출석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표로 오시기 바랍니다.*

6월 충현 기도의 창